

### “올해는 종단신도 조직화의 해로 삼을 것”

중앙신도회, 2월 15~16일 임원연수 열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2월 15~16일 갑오년 신년계획 수립과 신도조직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체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2014 임원연수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원에서 열린 연수에는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중앙신도회와 교구신도회, 포교신도단체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는 특히 올해를 ‘종단신도 조직화의 해’로 정하고 교구 신도회의 내실화와 중앙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희망드림(Dream) 대장정, 신도회 활성화 및 역량강화 토론회, 행복바라미 문화행사 등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연수에서 중앙신도회는 유명무실화된 교구 신도회를 정비하고 중앙신도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명시해 통합형 신도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에도 신도단체 설립 지원,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및 교육사업, 신도법비센터 운영, 신도회보 발간 등이 신도조직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지난해 첫 실시된 행복바라미 캠페인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이기흥 회장의 리더십 특강, 공주 동학사와 갑사 참배, 신년법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도 함께 자리했다.

이아은 기자

### “지역 연합회 조직 구성 ‘어·청’ 포교 활성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2014년 정기총회 개최

조계종 포교원 산하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2014년을 불교연맹 조직 단계 확장의 원년으로 정하고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갖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갖고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불교 사찰을 중심으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6개 시도지역에 지구연합회 조직 구성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구연합회 임원을 확대 임명하고, 대불연을 비롯한 불교 포교사를 대상으로 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불자 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트 전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후원회 조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45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8월 1~6일 경북 상주 강창나루 공원에서 진행되는 ‘제4회 국제 패드를 짚바라’에 참가하고 태국 불교국가 등 문화 탐방도 진행 할 계획이다.

이아은 기자

### 제35회 만해백일장대회...3월 1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주호)는 3월 1일 오전 10시 동국대 중앙당에서 제35회 전국만해백일장 대회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2월 22일 오후 6시까지 대불청 홈페이지(www.kyba.org)를 통해 하거나 행사 당일인 3월 1일 오전 10시까지 동국대 중앙당 앞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백일장은 시·시조·산문의 3개 분야로 전국 초·중·고등부 및 대학·일반부에 총 500여 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불교계 최대 인원인 20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만해백일장은 3·1민족자주독립선언을 기념하고 만해 스님의 민족애와 문화정신의 계승을 위하여 지난 1979년 3월 1일 시작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특히 2003년부터는 참가자들의 작품 표절 방지를 위해 중등부, 고등부의 경우 감독관의 감독 하에 강의실에서 일괄적으로 실시된다. 고등부의 경우 우수상 이상 수상을 하면 대학입학 시 특기자 전형에

## “처음으로 사람대접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양 한마음선원·포교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체험 실시

“남한에서 처음 맞이하는 가정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불자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대접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안양 한마음선원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1박 2일 가정체험 프로그램'이 개최됐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생들이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울고 있다. (사진제공=한마음선원)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종교를 초월해 진행되는 가정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안양 한마음선원(주지 혜원)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2월 12~13일 1박 2일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소속된 교육생 122명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신도들이 함께하는 '1박 2일 가정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과 20여 대중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안성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 조계종 포교사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 인솔자 등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행사는 본원 어머니합창단의 축하공연과 교육생들의 재기 발달한 공연이 이어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됐다. 신나게 박수를 치며 흥을 돋우다가도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랫말에 흐느껴 우는 이들도 있었다.

12일 아침, 한마음선원 스님과 신도들은 버스에서 북한이탈주민 한 사람씩 내릴 때마다 박수와 꽃을 건네며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 환영 인사를 받으며 도량에 첫 발을 들여놓은 122명의 교육생들은 정해진 번호에 맞춰 본원 신도와 하나 둘 짝을 이뤄 법당에 모여앉았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첫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교육생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보통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각자 파트너의 손을 잡고 도량을 나섰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울고 웃으며 첫 만남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교육생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보통 시민으로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각자 파트너의 손을 잡고 도량을 나섰다.

1박 2일간의 가정체험을 마치고 환송식이 열린 이날, 강당에 모인 참가자들은 어제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지금 여러

## 마음 행복해지는 ‘수행자 레시피’ 전하다

문화사업단, 국내 요리전문가 대상 사찰음식 팸투어

한국 조리계를 이끄는 유명호텔 셰프와 기능장, 국내 대학 조리학과 교수진들이 사찰음식의 맛과 지혜를 찾아 전국 사찰을 찾았다.

한편 사찰식 전통 조정, 등겨장을 비롯해 장아찌, 채소부각 등 다양한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어 음식 속에 담긴 불가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2회에 걸쳐 서울 진관사, 대전 영선사, 장성 백양사 천진암 등 3개 사찰에서 국내 요리 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팸투어를 개최했다.

또 2월 18일 2차 팸투어가 진행될 진관사에서는 발우공양 체험과 ‘정월 장담고기’, 김, 두부, 찜주 장아찌 등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먹거리와 소소한 재료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찰식 레시피를 소개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사찰음식 팸투어는 최근 채식문화의 확산과 웰빙 음식 메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조리업계 관계자 및 관계기관 교수진, 연구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불교적 생명사상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사찰음식 전문가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장담 고기는 생명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의 기원을 담은 의식과 같다”며 “매년 정월 대보름 날 좋은 시간을 택해 장을 담은 마음에는 어떤 재료를 써어도, 오래 묵혀두어도 변함없이 좋은 맛과 향이 나는 된장 같은 수행자가 되길 바랐던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요리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팸투어를 개최했다.

먼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영선사와 백양사 천진암에서 실시한 1차 팸투어에서는 사찰음식 전문가 법승스님, 정관스님과

있었다”며 “일반인들에게 사찰음식의 건강함과 스님들의 노하우를 전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2014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2년과정]

www.dongsanbud.net

**모집학과**

- 불교학과 접수중
- ▶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50명
- ▶ 목요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50명
- ▶ 통산반 : 30명

▶ 불교도학(2년)	3월 4일(화) 오후 2시	▶ 교과목	한국 문화, 유림문화, 일본문화, 중국문화, 태-베트남, 차의미학, 제다심명
▶ 불교미술(3년)	3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 교과목	사물기분, 불화기분, 단청기분, 신중, 보살, 야초, 영산회상도, 정토보살도, 수월관음도, 개발지름지도
▶ 선·명상(2년)	3월 6일(목) 오후 7시	▶ 교과목	1학기: 선불교 개론   2학기: 영물선 정토선   3학기: 초거울, 청정도론   4학기: 태몽선, 람법

열린 경전반(3개월)	붓다 한 말씀(초기 니까야 경전말씀)	이미경 교수	3월 8일(토) 오후 4시
	부처님 생애(초기불교 1)	김형준 교수	3월 4일(화) 오후 7시
불교대학원 (3년 : 법사과정)	묘법연화경 2	차차석 교수	3월 4일(화) 오후 8시
	초기불교수준론 9 (구차제정)	최봉수 교수	3월 6일(목) 오전 11시
불교의식교육원 (2년 : 의식법사과정)	법배의식반	인각 스님	3월 5일(수) 오후 3시
	한글의식반	한글의식	3월 8일(토) 오후 2시
	다비작법 (하)	심만춘 스님	3월 8일(토) 오후 4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 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4년 2월 2일부터 문의 : (02) 732-1206~8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군법당 관련종사자(군종병, 부사관, 장교)는 전액면제 교육함.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사무처: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수송동 46-20, 동산불교학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인도 나란타대학》

## 진로·적성·상담 안내

**진학상담 : C.A.C 분석서**

-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예측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담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탐동 873-2 (본부)  
 ⇨ 지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겸재 정비모 (010-5524-7053)

**인재양성**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 미래예측학 박사
- ◇ 저서 : 규명 1.2.3권 (한솔미디어) 실전성명학 (상원문화사) 명리 진학정보론 (상원문화사)

■ 동방대 문화교육원, 학습진로상담사 과정  
 매주 금 오후 2시~5시(봄학기 신입생 모집)  
 \* 학력불문, 진학관심자, 철학원 운영자,  
 (접수처 : 문화교육원 02-3663-9860)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4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목요일  
 오전반 10시부터 ~  
 오후반 6시부터 ~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맞은편 720-2버스 탐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 규명철학연구소 1층 H·P 010-5418-5972